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59-197  
<https://doi.org/10.29212/mh.2020.114.1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김경록\*

1. 머리말
2. 전쟁초기 조선의 전황과 영천지역 의병의 창의
3. 영천성 수복과 전과
4. 경상좌도 의병의 영천성 수복 의미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사에서 임진전쟁은 당시 동북아 국제전쟁으로 한중일 삼국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 전쟁이다. 높은 관심은 현재의 국제정세와 연결되어 자국중심 역사인식이 겹쳐져 삼국의 역사전쟁으로 현재진행 중이다. 한국학계의 방대한 임진전쟁 연구는 전쟁의 배경, 전개과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 국제관계, 군량, 병력, 무기체계, 전투, 강화교섭, 사회경제적 영향, 지역관점, 피로인, 인물 등 분야를 확대하며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접근한 연구분야가 의병이었다.<sup>1)</sup>

임진전쟁기 의병분야의 연구는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의병활동, 구성 등이 밝혀졌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연구는 한정된 사료에 주목하여 의병장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자칫 의병의 성격,倡義과정,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개인에게 집중시켜 의병에 참여하였던 당시 지역민들의 倡義의식이 간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진전쟁 초기 조선군은 전쟁대비가 미흡하여 일본군에 패하여 효율적인 전투를 치루지 못했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조선국왕을 생포하고 한양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축선중심으로 전투하며 북상했다. 그러나 후방지역에서 의병활동으로 주요 군사축선이 위태롭게 되고, 명군의 참전으로 전쟁지도에 큰 변화를 초래되었다. 명군참전 이전까지 일본군의 일방적인 진격을 후방에서 위협하였던 의병의 군사활동은 임진전쟁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은 명확하다. 기존 의병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병활동은 지역별 전투중심보다 임진전쟁 전체 전황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규 관군이 아닌 의병이 연합하여 의병부대를 구성하고 상호 어떠한 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임진전쟁기 의병활동 가운데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다양한 지역 의병이 “倡義精勇軍”이란 의병연합부대를 구성하고 엄격한 기

- 
- 1)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38, 201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100, 2016.
  - 2) 김석희, 「임진왜란의 의병운동에 관한 일고」, 『향토서술』15, 1962;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2001;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구』41, 2014 등.

을을 강조하며 지휘체계를 체계화하고, 부실한 군사장비에도 불구하고 정예 일본군을 대상으로 공성전을 펼쳐 주요 축선상의 성을 수복한 전과를 올린 전투가 영천성수복전투이다. 영천성수복전투를 임진전쟁기 조선의 최초 육전이라 평가하는 연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sup>3)</sup> 본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 및 임진전쟁에서 차지하는 군사사적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sup>4)</sup> 영천성전투, 영천전투 등의 용어와 달리 영천성을 수복한 전투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임진전쟁 초기 전황 속에서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을 조선군, 일본군, 의병 등으로 살펴보고 군사사적 성과를 정리한다. 추가하여 임진전쟁의 관점에서 영천성수복전투가 이후에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 및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쟁초기 조선의 전황과 영천지역 의병의 창 의

임진전쟁의 발발 이후 영천지역에 일본군이 진주한 것은 제2진 주장 加藤清正이 22,800여 명의 일본군을 이끌고 동로의 언양, 울산으로 진격하면서 그 선발대가 경주를 점령한 뒤 4월 23일 영천성에 무혈 입성하면서였다. 당시 영천을 비롯한 경상도는 관군 지휘관의 도망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방어할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좌병

3)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47, 1994.

4) 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47, 1994; 이광수, 「영천지역의 임란 의병활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13; 이재수, 「영천 읍성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52, 2014; 이육,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복성」, 『국학연구』26, 2015;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95, 2015.

사 李珥, 수사 朴泓, 방어사 成應吉, 조방장 朴宗男과 邊應星, 안동부사 鄭熙績 등 주요 지휘관은 근왕을 핑계로 담당한 군진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정회적은 吉州까지 도망했을 정도였다. 그 결과로 이각은 주살되었다.<sup>5)</sup> 영천에 입성한 일본군은 1,0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본진은 신령, 의흥, 용궁을 경과하여 조령으로 이동했다.

임진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은 전쟁목표가 수도 한양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국왕 선조를 사로잡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시대 전쟁에서 전쟁 상대국의 군주를 포획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여러 세대의 작전목적지를 한양으로 설정하고 경과하는 지역에 대해 완전한 점령보다 주요 간선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전투를 수행했다. 즉, 일본군은 총 9번대의 지상군을 구성하여 부산에 상륙한 뒤 국왕생포와 한양점령을 목표로 진격했다.

<표 1> 일본군 구성과 현황(1592년 6월 3일)

구 분	지휘관(병력)	전체병력
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7,000명), 소 요시토시(宗義守: 5,000명),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 3,000명),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2,000명), 오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1,000명),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700명)	18,700명
2번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0,000명),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12,000명), 사가라 요시후사(相良頼房: 800명)	22,800명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5,000명), 오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6,000명),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0,000명), 모리 가즈모토(毛利吉成: 2,000명), 시마즈 다다유타(島津忠豊)와 타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2,000명)	25,000명
4번대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4,800명), 토다 카즈타카(戸田勝隆: 3,900명)	14,000명
5번대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7,200명)	7,200명
6번대	초소카베 모토치카(長曾我部元親: 3,000명),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5,500명), 쿠루시마 미치후사(來島通總: 700명)	9,200명
7번대	고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15,700명)	15,700명
8번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0,000명)	1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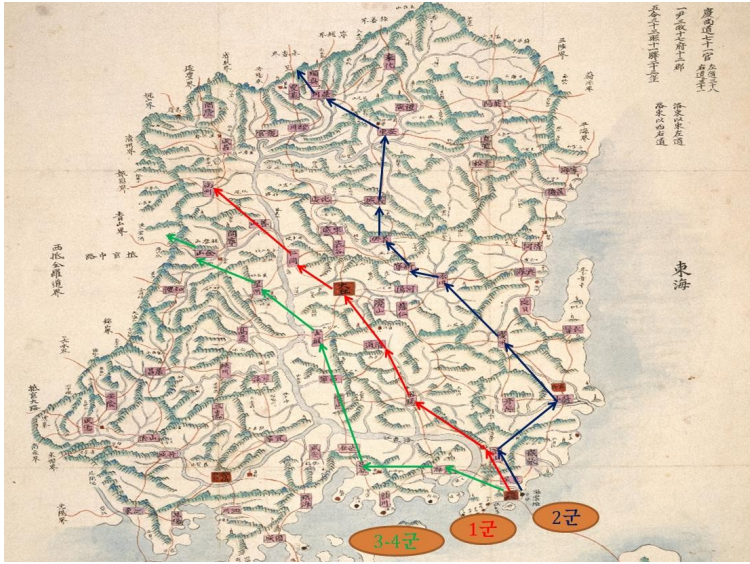
\* 전거 : 李炯錫, 『임진전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5)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표 1>과 같이 일본군은 병력 도합 158,700명으로 한양을 점령하고, 연이어 평양성까지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부대재배치를 통해 점령지역 통치에 들어갔다. 이들 부대 이외에 일본군은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2,000명,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賢) 850명,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400명,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1,000명, 난쵸 모토키요(南條元清) 1,500명, 이무라 히로히데(齋村廣英) 800명,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800명,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500명,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3,000명,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1,400명 등 12,000여 명을 후방지역에 남겨 후방경비를 담당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상륙 및 전투과정을 살펴보면, 小西行長이 지휘한 1번대는 4월 14일에 병선 700여 척에 분승하고 오전 8시에 大浦項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부산포에 상륙하였다.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를 치루고, 조선 관군의 큰 군사 위협없이 양산·밀양·대구·상주·조령방면으로 진격했다. 뒤이어 加藤清正이 지휘한 2번대는 대마도에서 1번대의 승전소식을 듣고 부산에 상륙한 뒤 경주·영천·신령방면으로 진격했으며, 黒田長政이 지휘한 3번대는 죽도 부근에 상륙하여 김해에 나아갔으며, 毛利吉成과 島津義弘이 이끄는 4번대는 김해에서 3번대와 함께 창녕·성주·개녕·추풍령방면으로 진격했다. 福島正則 등이 지휘한 5번대는 4번대의 뒤를 따라 진격했으며, 小早川隆景 등이 지휘한 6번대와 毛利輝元 등이 지휘한 7번대는 후방을 지키며 진격했다. 宇喜多秀家가 지휘한 8번대는 5월 초에 부산에 침입하여 한양으로 진격했다. 9번대는 4월 24일에 壹岐島에 留陣하며 대기했다.

<그림 1. 임진전쟁 초기 일본군의 진격로>



일본군에 침입에 대한 조선군의 대응을 살펴보면,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침입 4일째 慶尙左水使 朴泓의 보고를 접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중앙에서 주요 장수를 선발하고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즉, 李鑑을 巡邊使로 삼아 조령과 충주방면의 중로를 방어하도록 하고, 成應吉을 左防禦使로 삼아 죽령과 충주방면의 좌로를 방어하도록 하고, 趙徹을 우방어사로 삼아 추풍령, 청주, 죽산방면의 서로를 방어하게 했다. 이외에 劉克良을 助防將으로 삼아 죽령을, 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을 지키게 하였다. 즉, 임진전쟁 초기 조선은 청주를 일본군 진격로로 파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방어사 조경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어구상에서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는 제외되었다.

<표 2> 임진전쟁 발발직후 조선 관군의 지휘체계

성명	직책
李鎰	巡邊使
邊璣	경상좌방어사
趙徹	경상우방어사
成應吉, 梁士俊, 朴宗男, 邊應星	慶尙中·左·右助防將
郭嶸	전라방어사
李由義, 金宗禮, 李之時	전라중·좌·우조방장
李沃	충청방어사

\* 전거: 『亂中雜錄』권1, 壬辰上.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전쟁과정에서 일본군은 전쟁초기 일방적인 승전을 이어갔다. 이는 조선의 전쟁준비 부족 및 전쟁지도 부재에 원인이 있었다. 일본군이 신속하게 한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조선의 관군은 경상도에서 지리멸렬하였다. 처음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은 이일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경상순찰사 金睟가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군사를 집합시키고 이일을 기다렸지만, 실제 도착한 군사도 군적에 기록된 인원과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오기로 한 이일마저 기한에 늦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군사가 흩어지고 말았다. 부대의 군기가 해이한 현상으로 임진전쟁에 대비한 조선 관군의 부실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군의 초기 패전으로 일본군은 경상도를 거쳐 유래없이 빠르게 북진했다. 영천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번대의 일부 부대이다. 이 부대는 4월 21일 경주를 점령하고<sup>6)</sup>, 주력은 4월 22일 조선군을 좌병영성 전투에서 퇴패시키고 경상좌로를 따라 진격했다. 일본군은 4월 23일, 영천과 신령을 통과하여 일부 병력을 안동으로 진출시켰다.<sup>7)</sup> 이때 조선군

6) 이형석, 『임진전란사』상, 1967, 256~257쪽.

7) 조경남, 『亂中雜錄』권1, 임진년 4월 22~23일.

의 주력이라 할 좌방어사의 부대는 의흥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일본군과의 전면 대응을 피하였다. 영천을 점령한 일본군은 신령으로 진격하여 점령함에도 좌방어 성응길과 조방장 박종남은 북쪽의 의흥에서 남하하지 않고 머물러 전투하지 않았다.<sup>8)</sup> 이 당시 일본군 2번대는 처음 2개 부대로 분진하여 경주와 좌병영으로 진출했으며, 경상좌도를 거쳐 북상 중이었다. 이들 부대는 영천, 신령점령 이후에도 지형에 따라 2개 부대로 분진한 뒤 합류하며 이동했다.<sup>9)</sup>

진격하던 일본군은 전황에 따른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점령지역을 확보하되 이를 적절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병력배치를 고려했다. 한편, 1592년 6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점령지에 대한 민정을 실시하며 부대구성을 재편했다.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1~3번대는 부대를 유지하거나 보강했으며, 4~7번대는 후방지역에 주둔하며 지역점령정책을 펴도록 했다. 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1392년 8월 일본군의 부대배치 현황

지 역	지휘관	병 력
平壤지구	小西行長	약 20,000명
鳳山지구	大友吉統	약 6,000명
白川지구	黒田長政	약 5,000명
開城지구	戸田勝隆	약 4,000명
江原道 방면	毛利吉成, 島津義弘	약 20,000명
京畿道 방면	宇喜多秀家	약 30,000명
忠州지구	蜂須賀家政	약 7,000명
開寧지구	毛利輝元	약 30,000명
鎭山지구	小早川隆景	약 10,000명
釜山지구	羽柴秀勝	약 10,000명
咸鏡道 방면	加藤清正, 鍋島直茂	약 20,000명

\* 전거 : 이형석, 『임진왜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8) 조경남, 『亂中雜錄』권1, 임진년 4월 23일.

9) 池内宏, 『文祿慶長役』別編 第1, 吉川弘文館, 1936, 44쪽.

1592년 7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의 7번대를 지휘하여 小早川隆景이 부산에 상륙하여 일군을 창원을 통과하여 남원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지만, 宣寧에서 의병장 곽재우에 의해 패전하여 성주에서 일본군의 주력과 합쳤다. 즉, 조선에서 일본군의 후발군을 지휘한 小早川隆景의 7번대는 원래 작전계획대로 한양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梨峙전투에서 패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가져왔다. 한편, 이 시기 해상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일본수군을 연이어 격파하여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군의 진격작전이 좌절되었다. 조선군의 선전과 함께 일본군의 선전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錦山에서 招討使 高敬命의 의병을 격파하고, 평양에서 명 선발부대 祖承訓을 격파하고, 함경도에서 臨海君과 여러 조선의 충신을 포로로 잡았다.<sup>10)</sup> 즉, 6월까지 연전연승하였던 일본군이 평양성 점령이후에는 보급과 작전지역이 과도하게 넓어 작전의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식한 조선군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비록 소수의 선발대이지만 명군의 참전이라는 전황 변화요소가 발생하자 진격을 멈추고 작전수정을 고민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부대 재편을 통해 전체 병력을 府, 郡, 縣 등 주 보급로상에 선과 점으로 배치하여 연락과 보급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황 및 일본군의 병력배치를 고려하여 영천지역의 의병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병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조정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정과 관원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선조가 5월 3일, 개성에서 승정원의 관원들과 전황 및 민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통해 국왕 선조가 인지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주변에 필요한 숫자의 관원이 없는 점, 민심의 수습책 필요 등이 제기되며, 국왕의 일행이 피신한 평안도의 민

10) 『孤臺日錄』 권1, 임진 7월.

심마저 불안하여 국왕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內需司, 王子宮 등의 작폐를 엄금하고 평안도의 逋欠을 면제했다. 또한, 선조는 국왕으로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심각한 반성보다 지방 관원의 탐학으로 경상도 인민이 배반하였다고 인식했다. 무엇보다 감사 金暉가 착취하여 백성의 원망을 받았지만, 대체할 인물이 없어 관직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sup>11)</sup>

뒤이어 5월 23일, 선조는 피난 중에 전황이 궁급하여 대신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sup>12)</sup> 최홍원이 임진전투에서 관병이 패전 후 도망하고, 500명의 토병이 참전하지 않은 패전상황을 점검하고, 임진강전투에서 순절한 申誥의 군병이 재집결하고, 南兵使가 보낸 3,500명이 집결하였음을 보고했다. 불리한 전황과 함께 載寧 屯田의 저장곡 2만 석, 金谷倉·牙山倉 군량의 운반 등 군량문제를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충청지역 관병은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진다는 충청감사의 장계가 언급되었다. 윤두수가 충청감사의 장계에서 언급된 충청지역 전황의 연패가 오랫동안 태평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싸움을 몰랐다고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 피난 중에 최고지휘부의 패전 원인을 조선 정부의 국방정책 실패, 관병의 훈련과 전투의지 부족, 지휘관의 무능 등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서 찾고 있었다. 군량의 운반에 필요한 배와 뱃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인심의 동향을 윤두수가 언급했다. 임진전투에서 조선군이 획득한 지도가 백성들이 江華·喬桐의 뱃길을 일본군에게 준 것이었다. 임진전쟁 당시 민심이반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좌찬성 崔滉이 조선군의 장점인 弓馬를 보내지 않고 지친 군졸만 보내 패배하고 맹장마저 패하고, 척후를 활용하지 않아 일본군의 복병에 패했다는 관군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승지 柳根

11)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12)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23일(임오).

이 경상도에서 군사를 모집하도록 자신을 파견해 주도록 청하자 최홍원이 일본군으로 인해 도로가 不通일까 염려되고, 모집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본군의 敵勢와 人情도 모두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한 내용이 당시 조선군과 민심을 말해 준다. 당시 민심이 근왕병 내지 의병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즉, 당시 선조와 조정은 민심이 크게 이반하여 의병 내지 근왕병에 대해 크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병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실제 큰 기대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의병활동이 일어난 지역이 경상도였다. 이에 국왕 선조와 조정의 경상도 및 의병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영천을 비롯한 경상도의 민심은 이미 전쟁이전에 이반현상을 보였다.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변사에서 호남과 영남의 성읍을 수축하였는데, 경상감사 김수의 주도로 이루어진 축성과정에서 인력동원에 치중하여 실제 방어에 유리한 험한 곳에 의지하지 않고, 평지에 성을 쌓아 높이가 2~3장에 불과했다. 이는 실전에서 방위에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동원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피로감이 높았다.<sup>13)</sup> 경상감사 김수에 의해 추진된 성읍수축은 영천·청도·삼가·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좌우병영의 모든 성곽이 증축되고 참호가 설치되었다. 당시 영천의 성읍수축이 이루어졌지만, 방어능력을 제고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의병은 창의하여 의병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창의한 의병장들의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능력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방어하고자 하였던 목적도 있었다.

일본군은 경주, 영천을 경유하여 신령, 의성, 인동으로 진출하자

13) 『선조수정실록』권25, 선조 24년 7월 1일(갑자).

상대적으로 일본군 병력이 적은 상황에서 의병은 창의했다. 영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의병이 창의를 한 것은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의 약탈과 살육행위에 대한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다.<sup>14)</sup> 일례로 일본군이 분묘를 파괴하고 분탕질을 하기도 했다.

영천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서 5월 초부터 鄭世雅, 鄭大任, 權應銖 등이 의병을 倡義하였다. 의병이 창의를 하였음에도 실제 경상도의 상황은 관원, 조선군, 백성의 도망으로 창의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경상감사 김수가 치계하여 보고한 6월의 경상도 상황은 일본군의 횡행, 조선 관원의 도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덕현령 安璫의 수성상황을 보고받고 장계를 가져온 인물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김수가 선조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즉, 6월 말에 경상도는 일본군이 이미 주요 간선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지역별로 일본군이 완전 장악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해안은 長鬢 이상, 안동·청송·眞寶·봉화·예안·榮川·예천·풍기는 실제 일본군이 장악하지 못하였으며, 언양, 울산·경주·永川·新寧·義興·의성·군위·比安 등은 일본군이 횡행하며 부산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평안도로 병력 및 군수품을 조달하였던 군사요충지였다. 반면에 경상우도는 거창·안음·함양·산음·단성·하동·곤양·사천·진주는 일본군이 진출하지 못하였다.<sup>15)</sup> 영천지역은 신녕, 의흥 등과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고 일부 병력을 주둔시켜 축선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지역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군의 직접적인 점령지역으로 창의에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영천지역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의병장이 창의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4) 李魯, 『龍蛇日記』; 曹景溫, 『林溪實記』 권4, 행장, 임진.

15)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8일(병진).

영천지역의 주요 의병장들은 영천성수복전투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며 대체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부산진전투와 동래성전투의 패전이후 일본군이 한양을 향해 세 갈래 진격하였음을 서술했다. 1로는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을 거쳐 상주에서 조선의 이일군대를 격파하였으며, 2로는 김해, 성주, 무계, 지례, 금산(김천), 영동, 청주를 거쳐 경기로 나아가고, 3로는 장기, 기장, 울산, 경주, 영천, 신녕, 의흥, 군위, 비안, 용궁, 문경, 조령, 충주를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였다고 전제했다. 이 과정에 일본군이 군사축선을 유지하기 위해 5~60리마다營柵을 시설하여 수비하고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였는데, 경상좌도의 요로였던 영천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켜 노략질하여 백성의 피해가 심함을 언급했다.<sup>16)</sup>

영천지역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난조 모토키요(南條元清),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堅),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등이 500~2,000명의 병력으로 경상도 중남부에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리 데루모토의 휘하에서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에 분산 주둔하였으며, 조선의 각 거점지역에 있던 읍성을 성곽으로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이不在하면 단기간에繫城, 付城 등 부대 시설을 신축하여 주둔했다. 주둔과정에 식량을 약탈하고 조선인을 살해 내지 생포하였다. 무엇보다 식량은 주둔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단기간의 군량을 준비한 일본군의 입장에서 조선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선인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조선인과 충돌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주둔 일본군의 병력이 일정한 규모가

16) 鄭湛, 『永川復城日記』.

되어야 함에도 병력이 적어 위기의식이 발생하기도 했다.<sup>17)</sup>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영천의 유학 鄭大任, 鄭大仁이 창의하자 鄉中의 義士 曹希益, 曹城, 辛俊龍, 鄭千里, 鄭碩男, 崔仁濟, 金大海, 金演, 李得龍, 李蕃, 李榮根 등이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sup>18)</sup> 초기 창 의한 정대임, 정대인의 의병이 비록 큰 전투는 아니더라도 일본군과 조우하여 승리하면서 의병은 점차 세력을 규합하여 영천의 鄭世雅, 신령의 權應銖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병부대가 확대된 점도 중요하지만, 영천성수복전투의 시발점은 招諭使 金誠一의 초모활동이라 할 것이다. 전쟁직전 통신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민심의 우려하여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였던 김성일은 전쟁이 발발하자 잘못된 보고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다가 유성룡의 변론으로 경상우도 초유사에 임명되었다.

김성일은 경상도의 士民들을 초모하는 글을 통해 일본의 침략으로 국난에 빠진 상황을 서술하고, 조선의 군사지휘관과 수령의 무능과 비겁함을 질타하고, 영남이 일본군의 소굴이 되어 버린 상황을 개탄했다. 군사지휘관과 수령의 비겁함과 마찬가지로 선비와 백성들의 책임도 추궁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가혹한 조세, 과중한 부역 등으로 백성들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하되 전쟁직전 축성의 노역은 전쟁대비의 국가노력이었음을 강조했다.<sup>19)</sup>

김성일은 이와 함께 일본군의 갖은 횡포를 나열하고, 志士와 충신이 국난을 구해야 함에도 경상도 67개 고을 가운데 창의한 선비가 없음을 한탄했다. 일본군이 한양을 침범하고 평양으로 향하여 실제 대규모 병력이 경상도 전역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일본군이 조선 전역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에

17) 김경태, 2015, 앞 논문.

18) 문수홍 「임란 중 경상좌도지방의 의병활동-임진년 영천·경주성 수복전을 중심으로-」, 『소현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문총』, 1984. 참조.

19) 李魯, 『龍蛇日記』.

그 전에 선비와 백성들이 창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일은 영남의 유구함과 충절의 고향임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퇴계와 남명의 道學과 講明으로 인심을 순화시키고, 倫紀를 바로잡음을 강조하여 퇴계학과와 남명학파가 倡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파의 사대부가 불충불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면 衣冠을 갖추고 禮樂을 배운 몸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논리였다. 김성일은 선조의 교서를 내세우며, 경상도가 예의를 숭상하는 지방이며, 이곳에 사는 선비로서 창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창의방법으로 격문이 도착하면, 고을 수령이 효유하고 변장은 사졸을 격려하고, 전현직 관원과 父老, 儒生 등이 서로 유사하여 동지를 모으고 군사들을 이끌고 창의하도록 제시했다. 창의하면 조정에서 포상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했다.<sup>20)</sup>

김성일의 초모활동에 호응하여 경상좌도의 영천지역에서도 정대임을 비롯하여 진사 鄭世雅, 생원 曹希益, 전현감 곽회근 등이 호응하여 창의했다. 5월 초에 창의한 영천의 의병은 大洞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鄭千里를 시켜 좌병사 朴普에게 보고하였다. 박진은 정대임을 伏兵將으로 임명하였는데, 일부 사대부가 군관의 소임을 맡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대임은 국가호위 및 일본군 토벌에 문무의 구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의병은 민심을 같이하여 창의 10여 일에 9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했다. 한편, 좌병사 박진과의 지휘관계에 있어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의병은 초유사 김성일의 통제 받기를 희망했다. 이때 鄭大任, 鄭湛, 정세아, 曹希益, 郭懷根 등이 동의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정대임이 정천리로 하여금 성황산에 매복하도록 하고, 이번을 蓬川院에 잠복시켜 일본군의 행태를 정탐하였다.

7월 초에 정대임은 일본군 300여 명이 신령의 요로에 나타나 北

20) 『鶴峯集』 권3, 招諭文, 招諭一道士民文.

곶과 瓦村 등지에서 노략질하자 唐指山에 매복하였다가 급습하여 격퇴시켰으며, 7월 14일에 朴淵에서 신령 의병장 권응수, 의흥 북병장 홍천뢰 등과 함께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sup>21)</sup>

### 3. 영천성 수복과 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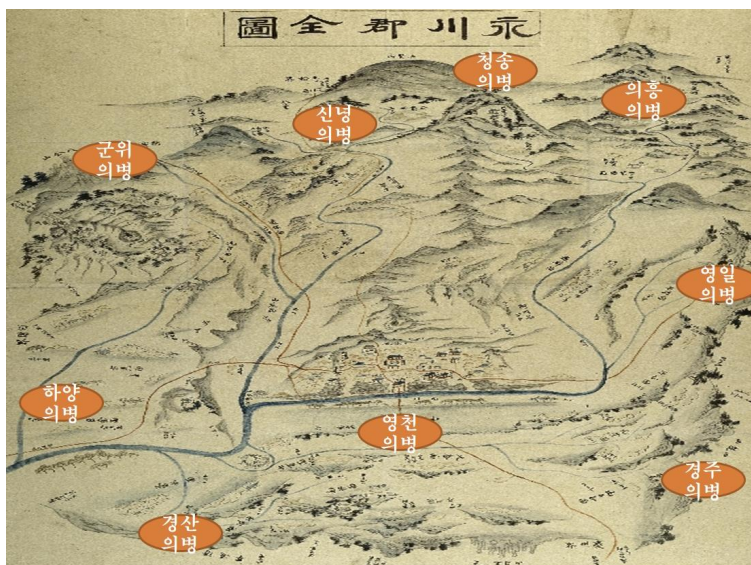
5월부터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던 경상좌도의 의병장들은 개별 전투를 치루며, 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倡義精勇軍이란 의병연합부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물이 영천성수복전투였다. 영천성은 당시 경상좌도의 경주에서 상주로 이어지는 군사축선에서 중간 거점이었다. 창의정용군은 부수적으로 이동하는 일본군과의 조우전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간 거점 영천성을 수복하여 일본군의 임진전쟁 戰爭指導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영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했다.

창의정용군으로 영천성수복전투에 임하는 의병부대는 다음과 같다. 영천(김윤국, 정대임, 정세아, 정담, 조성, 조희익, 광희근, 최인제, 정천리, 신준룡, 전삼익, 전삼달), 신녕(한척, 권응수, 이온수, 박응기, 정응거, 권응전, 권응평, 권응심, 권응신), 경주(권사악, 손시, 손엽, 최진립, 김응택, 최문병), 하양(조윤신, 신해), 경산(최대기), 의흥(홍천뢰, 홍경승, 이경천, 권황) 등이었다.

---

21) 鄭湛, 『永川復城日記』.

<그림 2. 창의정용군의 의병연합부대>



이들 의병장들은 여러 지역 수령과 의병의 참여를 요청하며, 7월 23일 추평에 진을 쳤다. 영천성에 火攻을 하기 위해 柴草를 마련했으며, 공성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었다. 전근대 공성전은 전투 가운데 가장 성공확률이 낮은 전투라 할 것이다. 공성을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가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조달되어야 하며, 수성하는 쪽보다 압도적인 병력동원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정예병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동원된 주 병력은 의병이며, 관군과 달리 공성을 위한 무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은 당시 조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병은 정탐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편의 봉우리에 병력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태와 규모를 파악하였다.<sup>22)</sup> 이는

22) 鄭湛, 『永川復城日記』.

전투에 있어 군사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활동으로 영천성 안의 일본군 군사상황을 파악하여 군사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일 이후 권응수를 비롯한 의병장들이 추평에 도착하였다. 7월 24일까지 합류한 의병 병력은 3,560여 명이었고, 25일에는 경주에서 權士諤, 孫時, 崔震立 등이 100여 명을 지휘하여 참전했다. 지역별로 영천, 경주, 신녕, 하양, 자인, 의성, 의흥, 흥해, 영일, 대구 등 10여 지역의 의병이 참가하였다. 단순한 의병부대 뿐 아니라 관군까지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했다. 4,000여 명의 관군과 의병이 영천성을 탈환하고자 참전한 것이다. 또 안동에 주둔한 경상좌병사 박진은 영천성수복전투를 듣고 권응수를 치하하며 군기·화약류를 지원했다.<sup>23)</sup>

24일, 경상좌도 의병연합부대는 전투를 위한 지휘부를 구성하고 부대명칭을 倡義精勇軍이라 하였다. 임진전쟁 당시 많은 지역에서 의병이 창 의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자신의 의병부대를 창 의정용군이란 별도의 부대명칭을 정립한 점은 무엇보다 정 규군이 아닌 의병의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열세의 무기체계를 효율적인 부대지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의병연합부대의 자존감을 제고하고 전투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지휘부를 구성하였음은 지휘체계를 일원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며, 부대는 3개 부대로 편제했다. 권응수를 의병대장으로, 신해를 좌총으로, 정대임을 중총으로, 최문병을 우총으로 삼고, 흥천뢰를 선봉장에, 김윤국을 별장에, 정세아와 정담을 찬획종사에 임명했다.<sup>24)</sup> 정대임을 비롯한 의병장들은 영천성 전투의 규모와 작전의

23) 權應錄,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24) 이형석, 앞의 논문, 423쪽.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율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전의 소규모 전투와 달리 수성하는 1,000여 명의 일본군을 대상으로 공성의 어려움 속에서 이탈 및 소극적인 전투자세에 대한 경계였다. 세부적으로 군율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두려워하여 겁내어 말을 어지럽히면 목을 벤다.
2. 적을 보고 5걸음 물러나면 목을 벤다.
3. 직무를 마음대로 하여 장수의 명령을 어기면 목을 벤다.
4. 전투에서 대열을 이탈하면 목을 벤다.

영천성 전투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7월 25일에 의병은 영천성수복공격이란 공성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화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화공을 위한 시초마련, 화약과 蒺藜를 종이에 싸서 습기에 대비하였다. 또한, 소규모 병력으로 일본군의 식수공급을 제약했다.

식수공급을 차단하자 26일 일본군은 별도의 병력으로 식수를 마련하기 위해 성을 나왔지만, 홍천뢰, 이온수 등이 공격하여 초기 의병과 일본군의 접전이 벌어졌다. 이 날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승려가 일본군의 상황을 의병에 전달함으로써 다음 날 본격적인 영천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sup>25)</sup>

영천성수복전투의 부대간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천성에 대한 지리에 익숙한 공격부대와 타 지역의 엄호부대로 재편하였다. 공격은 권응수(의병대장), 박의장(경주판관), 신해(좌총), 홍천뢰(선봉장), 한척(신녕현감), 조윤신(하양현감) 등이었으며, 엄호는 정대임(중총), 최문병(우총), 정세아(의병장), 정담(찬획종사), 김윤국(영천군수), 조희익 신준룡, 이번, 조덕기(의병장) 등이 지휘하였

25) 鄭湛, 『復齋實紀』권상, 永川復城日記; 權應鍊, 『白雲齋實紀』권2, 永川復城記.

다. 별도로 정천리가 지휘하는 500명의 부대가 마현산에 주둔하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다.<sup>26)</sup> 그러나 실제 전투에서 공격부대, 엄호부대가 모두 혁혁한 전공을 거두는 싸움을 실행했으며, 권응수는 북문, 정대임은 남문을 맡아 구분하였을 뿐이다.<sup>27)</sup> 즉, 전투과정에서 전공을 다투는 다른 전투와 달리 영천성 전투에 임하는 의병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8)</sup>

27일 영천성수복전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성안의 적으로 하여금 방어시설인 성을 나와 싸우도록 유인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유인책이 불가하면 본격적인 공성을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화공을 통해 성안의 적을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성안의 적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성문을 격파하고 성안으로 진입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거나 성벽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27일의 전투는 이러한 공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정대임이 지휘하는 부대가 남문을 공격하였으며,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지만,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우는 일본군과 접전하면서 의병의 기세는 높아졌다. 정대임의 분투로 여러 의병장들이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으며, 남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일본군 장수 法化가 투신하고, 정대임이 참수하였다.

권응수가 지휘하는 의병은 서북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지만, 일본군의 저항으로 상황이 쉽지 않았다. 이에 권응수가 물러서는 자를 참하고 공성을 독려하였다. 의병의 주춤하는 상황을 파악한 일본군이 성문을 열고 나오자 권응수를 비롯한 의병장들이 병력을 지휘하여 일본군에 돌격하였다. 의병은 성문을 파괴하고, 사

26) 鄭澁, 위의 책, 같은 곳.

27) 『선조실록』권46, 26년 12월 4일(계축).

28) 『선조실록』권44, 26년 11월 5일(을묘).

다리와 목책으로 성안을 공격했다.

남문과 서북문으로 진입한 의병은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으며, 전세가 불리해 진 일본군은 수세에 몰려 관사나 창고로 숨었다. 무엇보다 정천리가 당시 성안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을 풀어주고, 화공으로 일본군을 위협한 점이 주목된다. 치열한 전투과정을 통해 일본군은 대부분 전멸했으며, 일부 병력이 경주로 탈출했다.

치열하였던 영천성수복전투의 결과로 조선관군과 의병의 피해는 사망자 80여 명, 부상자 230여 명이었다. 또한, 일본군으로부터 200필 말을 노획하고, 900여 자루의 총통과 차엄, 기타 안장과 채식 의복 등을 노획했다. 영천성 전투를 통해 당시 일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던 1,090명을 풀어주기도 했다.<sup>29)</sup> 의병의 영천전투는 8월 1일, 선조에게 보고되었다.<sup>30)</sup>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된 실록기사는 다음과 같다.

“별장 권응수가 영천의 적을 격파하고 성을 되찾았다. 당시 일본군 천여 명이 영천성에 주둔하며 안동의 주둔한 적과 서로 호응하여 일로를 형성하였다. 영천의 사민이 여러 곳에 거주한 의병과 연결하여 공격하고자 박진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박진이 별장인 주부 권응수를 보내어 거느리고 진군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권응수가 의병장 정대임·정세아·조성·신해 등과 함께 군사를 지휘하여 영천의 박연에서 적병을 격파하고 그들의 병기와 재물을 노획했다. 이에 여러 고을의 병력을 모아 별장 정천뢰 등과 진군하여 영천성에 이르자 적이 성문을 닫고 싸우지 않았다. 권응수가 병력을 집중하여 포위 성문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권응수가 큰 도끼로 앞서 들어가 적을 죽이니 여러 군사들이 기뻐하며 북을 울려 함성지르며 진격했다. 적병이 패하여 관아 창고에 들어가니 관군이 창고를 불질러 적을 모두 죽이고, 도망친 자도 우리 군에 차단되어 수십 명이 겨우 탈출하고 수급을 뵈 것이 수백 급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을 수복하니 아군의 위세가 크게 일어났다. 안동 밑으로 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고 상주로

29) 鄭澐, 『復齋實紀』권상, 永川復城日記.

30)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가자 경상좌도 여러 고을이 안전하였다. 권응수는 용장으로 과감한 싸움은 다른 장수가 따르지 못했다. 이 일이 보고되자 통정대부를 가지하고 방어사에 임명했고, 정대임은 예천군수에 임명했다. 정세아는 가장 많은 병력을 가졌지만, 병력을 권응수에게 포함시키고 진중에 있지 않아 상을 받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상직을 차등있게 주었다.<sup>31)</sup>

실록기사에 영천성수복전투 이전의 상황 및 구체적인 전투과정이 묘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영천성수복전투로 인해 조선군과 의병의 사기가 높아졌으며, 일본군이 안동에서 상주로 이동하여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이 일본군의 수중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영천성수복전투의 성과를 당시 조선에서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영천성수복전투이후 경상좌도의 전황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1593년 1월 말 경상좌병사朴翥이 仁同의 일본군을 격파하자 일본군은 대구로 물러났다.<sup>32)</sup>

#### 4. 경상좌도 의병의 영천성 수복 의미

임진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조선군의 연전연패는 경상좌도를 손쉽게 일본군에게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한양을 점령한 뒤 전선을 북쪽으로 확장하였다. 평양까지 점령하자 의주의 선조를 압박하기 위해 각지에 주둔한 병력을 북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상좌도에 주둔하던 일본군도 적지 않은 병력을 북상시켰으며, 7월에 발생한 명군의 참전과 평양성전투는 일본군의 전쟁지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1)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32) 『고대일록』권1, 癸巳, 1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영천성수복전투의 군사사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영천성수복전투는 임진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의 전쟁지도를 잘 보여준다. 일본군은 무엇보다 한양 도성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국왕을 생포함으로써 전쟁승리 및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단 경로의 진격로를 통해 전선을 북쪽으로 설정했다. 한양 도성의 점령까지는 이루었지만, 국왕의 피난으로 전선이 계속 북상하고 서해안을 통한 병력 및 군량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군사축선이 길게 연장됨을 의미하며, 보다 많은 병력으로 연장된 축선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추가적인 병력 투입은 어려웠다.

5월 5일, 피난길에 오른 선조일행이 鳳山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군이 한양에 집결하였으며, 조선은 韓應寅을 諸道都巡察使에 임명하여 일본군에 대응하였다. 5월 7일에 전라좌수사 李舜臣 함대가 玉浦 앞바다에서 일본 함선 26척을 격파하고, 이어서 合浦의 일본 함선 5척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司譯院判官 韓濶輔를 遼東에 급파, 재차 임진전쟁의 전황을 통보하는 등 명군의 파병을 독촉하였다.<sup>33)</sup> 일본군은 북진하기 위해 임진강 방어선을 붕괴시켰으며, 조방장 劉克亮이 전사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 초반 무능력함을 보였던 조선군이 재정비됨과 동시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발생하여 각지에 소규모로 주둔하던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먼저 6월에 접어들면서 각지의 조선군이 근왕병을 조직하여 북상하였다. 그러나 5일에 경상·전라·충청도 3도 관찰사가 거느린 근왕병이 龍仁 文小山에서 와키사카 사헤이(脇坂左兵衛)의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선봉장 白光彦, 李時之 등이 전사하기도 했다. 조선군의 패배가 있었지만, 근왕병으로 조직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음은 일방적인 북상을 추진하던 일본

33)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참조

군 입장에서 전쟁지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점령한 지역에 대한 전쟁지도의 변화도 모색되었다. 경상좌도에 소규모로 주둔하였던 일본군은 식량조달을 위해 조선인을 약탈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졌던 사대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일본군의 약탈에 대응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5월 25일에는 경상우도 의병장 郭再祐의 의병 부대가 鼎岩津을 도하하는 안코쿠지 에케이(安國寺惠瓊) 휘하의 일본군을 공격하여 함안 방면으로 격퇴시키기도 했다. 소규모의 지역 주둔군으로 안정적인 점령정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음을 반영한다.

둘째, 공성전을 통한 의병연합부대 창의정용군의 승리라는 점이다. 의병의 전투양상은 대체로 중요 길목을 차지하여 이동 중인 일본군에 대한 기습 내지 전투를 치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천성수복전투는 의병이 연합하여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영천성을 공성전으로 수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의병연합부대 창의정용군의 승리는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 의병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영천 지역 의병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계기는 첫째,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대장을 임명함으로써 지휘 체계가 확보되었으며, 둘째, 명군의 참전으로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었으며, 셋째, 이전의 수 차례 영천 의병의 승리로 사기가 고조된 점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sup>34)</sup> 분명 영천과 인근지역의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음은 영천성수복전투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임진전쟁 기간 중 여러 지역에서 의병이 창의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의병간의 의견충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한 의병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의견충돌이 없었다. 이는 전투의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병이 주축이었던 부대가 공성전을 승

34) 이육,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復城」, 『국학연구』 26, 2015.

리로 이끌었다는 점은 영천성수복전투의 가장 큰 의미라 할 것이다. 공성전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가지고, 정밀한 공성장비를 갖추고, 잘 훈련된 부대가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전투이다. 수성하는 입장에서 보유한 병력을 성곽에 의지하여 적절한 화력으로 지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전투이다.

공성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술은 수성하는 일본군을 성밖으로 유인하여 격퇴하고 성문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었다. 실제 영천성 전투에서 배산이었던 마현산에 허장성세로 병력을 배치한 뒤, 남문과 서북문으로 병력을 집중시키되 500여 명 규모로 전투를 유발하였던 점이 주효하였다.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의병과 접전을 벌였으며, 성벽 위에서 조총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성을 나온 일본군이 기세를 높일 때, 정대임, 권응수 등 의병장들은 병력을 독려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성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성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놓치지 않고 성안으로 진입한 뒤 일본군과 격전을 더욱 독려한 점에서 의병장들의 지휘력이 발휘되었다.

셋째, 영천성수복전투의 승리는 경상좌도를 일본군의 수중에서 되찾고 일본군의 군사축선을 단절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군은 안동에서 상주로 이동하고, 일부 병력은 경주지역으로 후퇴했다. 이는 북상하였던 일본군과 부산을 근거지로 군수 및 병력을 조달하는 군사축선이 단절됨으로써 많은 군사활동의 제약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6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해상에서 唐項浦해전의 패배로 더욱 제약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6월 5일에 경상우도의 高靈 의병장 鄭仁弘 부대가 낙동강변의 茂溪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밤에 기습하기도 했다. 또한, 6월 15일, 일본군이 평양성을 함락함으로써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였다. 평양성 점령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병력과 물자를 북쪽에 집중하여 최종적으로 선조를 압박함으

로써 전쟁의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7월 8일에 梨峙에서 광주목사 權栗이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의 일본군을 맞아 격퇴함으로써 일본군의 전라도 석권이 저지되고, 조선수군에 의해 한산도해전, 안골포해전이 벌어져 일본수군이 궤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이 7월 17일에 명나라 요동 부총병 祖承訓의 부대가 참전하여 조선의 金明元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sup>35)</sup> 비록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명군의 선발대가 평양성에 출병하여 전투하였다는 점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쟁지휘 및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경상좌도의 영천에서 의병을 주축으로 한 병력이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군사축선을 단절시키는 전공을 거둔 것이다. 소규모 병력을 축선 중심의 방어병력으로 주둔시켰던 일본군은 이후 요충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의병 및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새로운 전황을 초래했다. 명군의 선발대로 참전한 조승훈의 병력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유격장 史儒 등이 전사함은 조선군 전체에 큰 충격을 초래했다. 조선은 임진전쟁 발발이후 명군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요동의 병력이 조선에 파견되었다. 명은 지역차원에서 요동의 병력을 통한 임진전쟁 파병을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6월 초에 寬奠參將 修養正, 鎮守總兵 楊紹勳, 副總 祖承訓 등으로 하여금 의주를 통해 조선에 파견했다.<sup>36)</sup> 실제 병력을 지휘한 인물은 조승훈이었다. 調度使 洪世恭의 치계에 표현된 명 요동군대는 廣寧遊擊 王守官, 原任參將 郭夢徵의 부대 506명, 말 779필, 副總兵 조승훈의 부대 1,319명, 말 1,529필의 규

35)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참조.

36)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14일(임인).

모였다. 그러나 조승훈의 부대는 기율이 엄중하지 못하고 실제 전투 능력이 강하지 못했다.<sup>37)</sup> 부총병 조승훈, 유격장군 史儒·王守官 등이 평양성을 공격한 날은 7월 17일이며, 일본군의 전투능력을 과소평가한 명군은 전투에서 유격장군 사유, 千摠 馬世隆·張國忠 등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했다.<sup>38)</sup>

이러한 시점에 영천성수복전투의 승리가 전해지며, 조선 조정과 관군, 의병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8월 1일, 순변사 李賓의 조선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에 나선 점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수세에 몰려 명군에 크게 의지하였다가 영천성 탈환을 계기로 조선군의 과감한 평양성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8월 2일에 의병장 趙憲의 의병, 승려 靈圭의 승병, 충청도 방어사 李沃의 관군이 연합하여 청주성의 일본군을 격파하고 청주를 탈환하는 승전보를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1달 반 뒤인 9월 9일에 경상좌병사 朴晉이 경주성의 일본군을 공격하여 경주를 탈환하고, 신형무기인 비격진천뢰를 사용한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섯째, 임진전쟁 전황의 전환계기를 마련하고, 명군과의 관련성이다. 조선은 임진전쟁이 발발한 뒤 지속적으로 전황을 명에 전달하고 명군의 파견을 요구했다. 9월 15일에 요동에 자문을 보내 조선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며 전쟁을 수행함을 강조하고 명군의 파견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군이 거둔 성과를 내세우며 영천성수복전투를 강조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 崔遠이 8월 6일 의병장 金千鑑, 강화부사 尹湛, 月申鎭鎭節制使 李嶺 등과 배를 타고 진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土城으로 들어갔는데, 諸軍이 2백여 명을 사살하고 수급 92顆를 얻었습니다. 적도 1천여 명이 永川郡에 주둔하

37)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20일(무신).

38) 『선조실록』권28, 선조 25년 7월 20일(정축).

고 있었는데 7월 28일 경상병사 차썸이 돌격장인 訓練院奉事 權應銖 등에게 응모한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本郡을 포위하게 한 다음 砲로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 官舍와 창고를 불태우자 적도들이 놀라 무너졌습니다. 승세를 타고 장졸이 추격하자 적병은 불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으며, 수급 517顆를 베었습니다. ... (중략)... 왜적이 각 지방에 가득하여 날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각기 지방의 해당 장수들이 참획하고는 있으나 대세가 꺾이지 않아 갈수록 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평양의 왜적과 황해·함경 두 도의 적도들이 聲勢가 서로 연결되어 수시로 출몰하는데 본국의 군사들은 피로가 너무 극심하니 민망할 뿐입니다.”<sup>39)</sup>

처음 선조는 전황에 대한 자문을 보내기를 주저하자, 대신들이 명나라에 일본군을 무찌른 전황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임진전쟁은 국제전쟁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전쟁이다. 비록 명군의 전투능력과 상관없이 명군의 참전은 일본군의 군사전략 및 조선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군 조소훈부대가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요동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에서 의병을 주축으로 한 부대가 공성전으로 군사축선의 요충지였던 영천을 수복한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본격적인 명군 참전을 요구하는 조선의 주장에 큰 힘이 되었다.

조선의 지속적인 파병요구 및 전황을 접한 명은 일본군의 본토침략의 가능성을 확인하자 파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sup>40)</sup> 명은 8월에 접어들면서 병부우시랑 宋應昌을 경략에 임명하고, 경략 송응창이 군비 20만량, 贊畫으로 兵部主事 袁黃, 劉黃裳을 차출해 줄 것을 건의하자 만력제는 승인했다.<sup>41)</sup> 즉, 명군의 파병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39) 『선조실록』권30, 선조 25년 9월 15일(임신).

40)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19, 2013. 참조.

41) 『경략복국요편』.

일본군은 조승훈부대의 평양성 전투, 영천성수복전투, 청주성 전투 등을 전후하여 북상하는 전술을 바꾸어 진주성을 대규모로 공격하는 등 호남진출을 기도했다. 즉, 일본군은 명군의 참전이 가시화되면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일본군의 이러한 입장전환을 유도한 것은 명군의 참전 가능성이었으며, 명군의 파병을 요구하며 조선이 내세운 논리 중 영천성 전투가 제시되었다.

경략 송응창, 제독 이여송이 지휘하는 명군이 참전함으로써 임진전쟁의 전환은 급변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한양으로 후퇴하고, 뒤이어 남쪽으로 군대를 물리게 되었다. 명군의 참전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의 남쪽으로 철수하자 선조는 무엇보다 각지의 관원을 수령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1593년 3월에 田見龍(定州牧使), 崔琛(价川郡守), 李德弘(永川縣監), 宋德潤(楊根郡守), 柳雲龍(豐基郡守), 趙誼(南原府使)를 임명했다.<sup>42)</sup> 이들 지역은 남해안의 일본군을 전투할 때, 후방지역으로 병력조달과 군수지원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천현감으로 이덕홍이 임명되었다.

한편, 1593년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회복한 뒤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 강화회담이 본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명군의 일본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1593년 6월에 명군은 일본군의 점령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선에 파견된 명군의 최고지휘관이었던 경략 송응창은 조선의 지방 가운데 일본군이 점령하였던 지방과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군의 점령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일본군의 전쟁지도 및 점령지역의 일본군 친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조선은 자문을 보내어 점령여부를 상세히 보고했다.<sup>43)</sup>

42) 『선조실록』권36, 선조 26년 3월 20일(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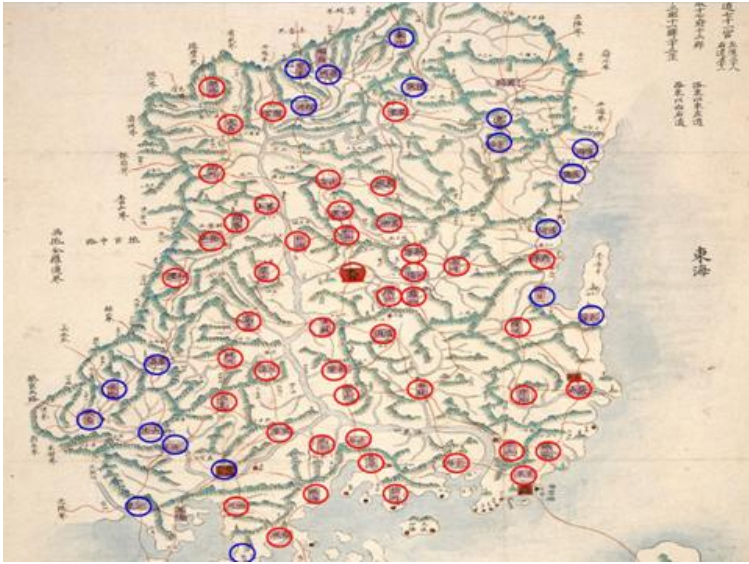
43) 『선조실록』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표 4> 임진전쟁시기 일본군의 점령현황

구분	군현	점령
평안도	平壤, 中和, 祥原	○
	寧邊, 肅川, 成川, 定川, 安州, 龜城, 朔州, 昌城, 義州, 江界, 德川, 順川, 熙川, 雲山, 嘉山, 郭山, 宣川, 鐵山, 龍川, 渭原, 碧潼, 博川, 理山, 寧遠, 慈山, 价川, 甌山, 咸從, 江西, 永柔, 龍崗, 三和, 順安, 江東, 三登, 陽德, 孟山, 泰川, 殷山	×
황해도	黃州, 海州, 瑞興, 平山, 豐川, 鳳山, 谷山, 遂安, 信川, 安岳, 載寧, 白川, 新溪, 牛峯, 文化, 松禾, 長淵, 甕津, 康翎, 殷栗, 江陰, 長連, 兔山	○
	延安	×
경기도	廣州, 驪州, 坡州, 楊州, 水原, 富平, 利川, 仁川, 長湍, 南陽, 楊根, 豐德, 加平,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龍仁, 振威, 永平, 陽川, 金浦, 砥平, 抱川, 積城, 果川, 衿川, 通津, 交河, 漣川, 陰竹, 陽城, 陽智, 竹山	○
	江華, 喬桐	×
강원도	原州, 淮陽, 襄陽, 春川, 三陟, 江陵, 鐵原, 通川, 平海, 旌善, 高城, 杆城, 寧越, 平昌, 金城, 蔚珍, 歙谷, 伊川,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橫城, 麟蹄, 安峽	○
경상도	慶州, 星州, 安東, 昌原, 金海, 密陽, 善山, 大丘, 東萊, 草溪, 蔚山, 梁山, 淸道, 禮泉, 永川, 興海, 金山, 咸安, 陝川, 慶山, 固城, 巨濟, 義城, 泗川, 鎭海, 開寧, 三嘉, 高寧, 宜寧, 河陽, 龍宮, 彥陽, 漆原, 仁同, 聞慶, 咸昌, 知禮, 玄風, 軍威, 比安,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機張, 熊川	○
	青松, 寧海, 榮川, 豐基, 咸陽, 南海, 盈德, 居昌, 奉化, 河東, 淸河, 安陰, 丹城, 禮安, 迎日, 長髻, 眞寶	×
함경도	安邊, 德原, 鍾城, 慶興, 文川, 高原, 三水, 端川, 洪原, 利城, 明川	○
충청도	忠州, 淸州, 淸風, 丹陽, 槐山, 文義, 堤川, 懷德, 延豐, 陰城, 淸安, 鎭川, 永春, 報恩, 永同, 黃澗	○
	公州, 洪州, 林川, 泰安, 韓山, 舒川, 沔川, 天安, 瑞山, 沃川, 溫陽, 鴻山, 德山, 平澤, 稷山, 定山, 青陽, 恩津, 懷仁, 鎭岑, 連山, 尼山, 大興, 扶餘, 石城, 庇仁, 藍浦, 結城, 保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靑山, 牙山	×
전라도	珍山, 錦山, 龍潭, 茂州	○
	羅州, 光州, 南原, 長興, 順天, 潭陽, 濟州, 寶城, 益山, 古阜, 靈岩, 珍島, 淳昌, 金堤, 礪山, 靈光, 樂安, 昌平, 臨陂, 萬頃, 金溝, 稜城,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平,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 求禮, 谷城, 長城, 珍原, 雲峯, 任實, 長水, 鎭安, 大靜, 旌義, 全州	×

\* 근거 : 『조선선조실록』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그림 3.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우도의 일본군 점령지역>



조선은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군이 철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中樞府事 尹根壽, 예조판서 鄭昌衍, 이조참의 吳億齡, 사헌부 장령 李尙毅 등을 경략에게 파견하여 명군의 遺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략은 앞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점령여부를 점검하고 잔존한 일본군이 극소수로 곧 일본으로 회군할 것이라 판단하고 조선의 철수반대를 반박했다.<sup>44)</sup>

영천성수복전투의 의미는 공신녹훈과정에서 부각된다. 전쟁이 끝난 뒤 1604년(선조 37) 6월 6일, 선조는 元勳·大臣과 함께 공신녹훈의 개정을 논의했다. 임진전쟁의 공훈은 신축년에 扈從과 征倭로 공신들을 나누어 녹훈되었으며, 1602년(선조 35)에 함께 녹훈하였다. 이 때 言官이 나누어 녹공하고 27명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44) 『선조실록』권41, 선조 26년 8월 26일(정미).

또한, 追錄한 鄭運 등도 삭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신녹훈의 최종 결과에 비율문제가 발생했다. 즉, 녹훈된 정왜무장은 이순신·권율·원균·고언백 등 4명뿐이었다. 영천수복의 權應銖, 해전에서 승리한 李億祺, 幸州대첩의 趙傲, 晋州의 金時敏·李光岳, 延安의 李廷龜 등 수성의 공이 있었지만, 공신녹훈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무장들의 사기문제가 관련되었다. 비록 무장은 아니더라도 임진전쟁 초기에 대명사행 중이었던 申點은 玉河館에 머물다가 일본군의 침략소식을 듣고 請兵외교활동을 펼쳐 명군의 참전에 공이 있었다. 선조와 대신들은 최종적으로 공신녹훈을 개정하며, 권응수를 비롯한 인물들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扈聖과 宣武공신으로 구분하되 3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sup>45)</sup> 권응수의 경우, 전쟁기간 중 지속적으로 군사지휘관으로 활약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1597년(선조 30) 1월 23일, 경상좌도 방어사였던 권응수는 일본군선 150척이 다대포에 정박하여 가등청정이 재침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했다.<sup>46)</sup>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영천성수복전투의 배경이 되는 초기 전황 및 전투 과정, 군사사적 분석을 개략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생략하고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하였던 의병들에 대한 연구에서 향후 필요한 사항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영천성수복전투의 구체적인 경과과정에 대한 이해는 이미 사료와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투에

45) 『선조수정실록』권38, 선조 37년 6월 6일(을유).

46) 『선조수정실록』권31, 선조 30년 1월 23일(갑인).

참여하였던 의병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병장의 창의동기, 시대적 배경, 일본군의 주둔현황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병의 창의를 사상적으로 학맥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인 창의동기를 밝혀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영천, 신녕, 의흥, 경주 등 주변 지역의 당시 현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강력한 일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의병이 창의하기 어렵다. 또한, 일본군의 점령여부를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첫 단계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조선 1592년 임진전쟁과 창의정용군의 영천성수복전투”와 같은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47)</sup>

둘째, 창의정용군과 의병활동에 대한 인물중심에서 부대중심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임진전쟁의 의병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낸 것은 의병장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인물 중심의 분석은 의병창의의 배경 및 과정, 의병활동의 성격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자칫 인물에 과도한 집중을 하여 의병부대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물과 가문에 한정된 평가는 인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적으로 활동평가로 이어져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에 영천성수복전투의 경우, 인물중심에서 벗어나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에서 창의를 의병이 어떻게 창의정용군이라는 의병연합부대를 형성하고, 공성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한 의병장의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47)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이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본 학술회의에서 지용스님의 “영천성수복전투 자료수집 현황”, 김경록의 “영천성수복전투 전개과정과 특징”, 김강식의 “의병의 시각으로 본 영천성수복전투”, 최재호의 “임진 실기살상 영천성수복전투” 등의 발표가 있었다.

및 활동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용한 방법론이 전쟁실기를 통해 분석이다. 민족, 군대 지휘관, 정치가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전쟁의 의미는 차이가 난다는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 三重性(trinity)”을 임진전쟁에 적용하면 경상좌도의 의병장 가운데 정치가[官僚], 군대의 지휘관[義兵], 민족[戰災民]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의병장이나 관원이 경험하는 범위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임진전쟁에 대응하는 현실 양상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sup>48)</sup>

넷째, 최초의 육지전투에서 승리라는 관점보다 영천성수복전투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최초라는 이름에 집착하여 임진전쟁의 매우 중요한 전투였던 영천성수복전투를 과도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연대기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영천성수복전투 전후 주요 전황, 정세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서 가능하다. 오히려 영천성수복전투의 역사적 성격을 의병중심 부대가 제한된 상황에서 불리한 공성전을 펼쳐 승리하고, 명군의 참전을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천성수복전투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사료에서 영천성수복전투를 평가한 점, 실록을 비롯한 기록의 평가, 공신책봉과정에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본 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영천성수복전투 및 경상좌도, 경상우도의 주요 전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1. 3,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임진전쟁, 영천성, 수복전투, 의병, 창의정용군, 공성전,  
국제전쟁

48) 최재호, 「남명학과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학사학위논문, 2011. 14쪽.

##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趙慶男, 『亂中雜錄』

鄭慶雲, 『孤臺日錄』

李魯, 『龍蛇日記』

曹景濫, 『林溪實記』

鄭湛, 『永川復城日記』

金誠一, 『鶴峯集』,

權應銖, 『白雲齋實紀』

鄭湛, 『復齋實紀』

宋應昌, 『經略復國要編』

이형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13.

池內宏, 『文祿慶長役』別編 第1, 吉川弘文館, 1936.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38, 2016(DOI : 10.19120/cy.2016.04.38.5)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100, 2016. (DOI : 10.29212/mh.2016..100.67)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DOI : 10.17856/jahs.2016.12.137.51)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DOI : 10.18496/kjhr.2017.08.57.123)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 논총』19, 2013.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95, 2015(DOI : 10.29212/mh.2015..95.363)

- 문수홍 「임란 중 경상좌도지방의 의병활동-임진년 영천·경주성 수복전을 중심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문총』, 1984.
-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이광수, 「영천지역의 임란 의병활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욱,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복성」, 『국학연구』26, 2015(DOI : 10.36093/ks.2015..26.003)
- 이재수, 「영천 읍성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52, 2014(UCI : G704-002017.2014..52.004)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최재호, 「남명학파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11.
-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47, 1994.

(Abstract)

The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 castle(永川城收復戰鬪) and features from the military historical point of view during the Imjin War(壬辰戰爭)

Kim, Kyeong-lok

During the Imjin War, the Joseon army's losing streak was caused by Japanese troops occupying both Hanyang(漢陽) and Pyongyang(平壤). The Japanese forces, which had pushed Pyugyang to press king Sŏnjo(宣祖) fled to Uiju(義州), were forced to make tactical changes due to community-centere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義兵) in the rear. Based on thes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永川城收復戰鬪) and the military historical features of the Imjin War.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mjin War as Joseon, Japanese, and volunteer soldiers from the standpoint of the battle that re-seizured Yeongcheonseong(永川城戰鬪), unlike terms such as Yeongcheon Battle(永川戰鬪) and to summarize the military history of the battle. In addition, we will look at how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recognized, evaluated and utilized in the future from the Imjin War perspective.

After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the Japanese troops in the Yeongcheon region advanced north, leaving some part of troops behin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Yeongcheon region joined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surrounding regions to form Changuijeongyong-army(倡義精勇軍) and continued fighting with the

Japanese army.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ere rar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Even if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ere united, they could not fight efficiently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command system. Nevertheless, Changuijeongyong-army, which joine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united and prepared for battle to overcome regional turmoil and overcome the crisis.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the military service in Yeongcheon, in response to the rising from the surrounding area, various military veterans participated and agreed to the era of ousting Japanese troops without regard for mutual interests. In addition, an army leader(義兵將) with excellent military capabilities successfully commanded Changuijeongyong-army, which successfully ran a siege warfare , the most difficult battle of pre-modern times.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is a battle fought against the best Japanese troops by allie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not regular troops, an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ith little military equipment . It was a battle that defeated a Japanese army, and a battle that defeated the Siege warfare, which was possible only with the overwhelming strength and experience of a poor soldier,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hen the Japanese defeate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they lost the main strategic military route in Gyeongsang-do(慶尙道) and retreated to Gyeongju(慶州).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later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Joseon demanded the Ming Dynasty. In other words,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a very important battle not only in terms of war and combat history, but also in terms of military diplomacy. In conclusion, the Changuijeongyong-army in Yeongcheon was the bes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an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on the most difficult battle of Siege warfare against the elite Japanese army armed with a fowling piece by the poor Changuijeongyong-army

with limited military equipments. The battle was a turning point that greatly changed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war.

This battle was of great military and diplomatic significance, leading to the involvement of Ming Dynasty's armed forces in Imjin War, and it was the best feature of the Imjin war as an international war.

Keywords : Imjin War(壬辰戰爭), Yeongcheon castle(永川城), Re-seizure Battle(收復戰),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義兵), Changuijeongyongarmy(倡義精勇軍), Siege warfare(攻城戰), International war(國際戰爭)

